

세계인권도시포럼 10월7일 온라인 개막

광주시는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을 오는 10월7일부터 10일까지 ‘지역과 공동체-인권도시의 미래’라는 주제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현장 청중 없이 온라인 화상방식으로 열리며, TV녹화방송 및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인 누구나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생중계 참여는 세계인권도시포럼 홈페이지(<http://www.whrcf.org>), 유튜브(세계인권도시포럼)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포럼은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네스코 본부가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그만큼 세계인권도시포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광주시, 국가인권위

원회, 광주시교육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4개 기관이 함께 주최해 왔다.

주요 인사로 국내에서는 이용섭 광주시장, 최영에 국가인권위원장과 이재준 경기도 고양시장이 참석한다. 해외에서는 미첼 바젤렛 UN 인권최고대표,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에밀리아 사이즈 세계지방정부연합 사무총장과 마커스 피니히 독일 뉘른베르크시장, 마르테 뢰스 페르세 노르웨이 베르겐시장 등 해외시장 14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다.

포럼은 국내 32개, 해외 11개 협력기관이 참여해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공식행사, 전체회의, 주제회의, 특별회의, 네트워크회의, 인권교육

회의, 연계행사 등 7개 분야 35개가 운영될 계획이다.

개회식은 이 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UN 인권최고대표가 기조발제를 한다. 두 기관의 기조발제는 영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체회의1’에서는 각 도시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포용적인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 ‘전체회의2’에서는 10월초 UN 인권이사회가 채택하는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에 대응해 2021년 인권도시 운동에 대한 공동로드맵을 협의한다.

‘전체회의3’에서는 지방정부들의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공유하고 보다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방

안을 모색한다.

‘주제회의’에서는 노인, 여성, 어린이·청소년, 장애, 이주민, 환경, 사회적경제, 안전도시 등 8개 주제별로 지역 시민단체들이 직접 회의를 기획·운영해 시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을 도출하게 된다.

‘특별회의’로는 국내 기억도시 네트워크 회의, 글로벌 청년 주거권 회의,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회의, 인권논문 발표, 해외 인권정책회의, 인도네시아 인권도시 회의 등이 운영되며, ‘네트워크 회의’에는 유네스코 포용 및 지속가능도시국제연합 회의, 유네스코 아태차별반대시민연합 워크숍,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워크숍, 인권도시 확산 프로젝트 워크숍 등

UN·유네스코 공동주최로 DJ센터서 나흘간 열려
국내외 43개 기관과 7개 분야 35개 프로그램 운영

이 열린다.

‘인권교육회의’에서는 광주국제인권교육센터 운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과 아태지역 지방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편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올해 10회째를 맞이하는데 참여규모와 내용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왔다. 먼저, UN기구, 중앙·지방정부, 국제인권단체·연구소,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인권보호주체가 참여하는 국제인권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세계 최대 국제인권행사로 자리매김했다.

2011년부터 광주시가 국제인권도시 확산 운동도 전 세계에 펼쳐왔고 이런 노

력을 바탕으로 UN인권이사회가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을 2013년에 처음 채택하게 됐다.

또한 UN인권이사회가 2015년과 2019년에 채택한 ‘지방정부와 인권 보고서’에는 광주시의 인권정책과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우수사례로 실리기도 했다.

윤목현 민주인권평화국장장은 “세계 대표적인 UN기구 2개 기관이 포럼에 참여한다는 것은 10회째 맞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광주시를 중요한 인권연대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다”며 “앞으로 광주가 인권도시 확산운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럼을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기자



중소기업 현장방문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 현장방문에 나선 이용섭 광주시장이 23일 오후 북구 첨단2지구에 있는 지역 중소기업 ㈜티디엘을 방문해 김유신 대표로부터 생산 제품을 소개받고 있다. <광주시 제공>

‘남도장터’ 입점업체 품질 강화...고객 불만 제로 도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위반업체 즉각 퇴출

전남도는 23일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엄격한 품질관리에 나서 고객 불만 제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남도장터’는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 증가와 친환경 꾸러미 지급 등에 힘입어 지난 4일 기준 매출액 2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지난해 8월 말 대비 7.4배 가량 급성장하면서 입점 상품에 대한 품질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오는 28일까지 도내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남도장터 원산지 표시 및 식품안전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특히 부정 유통을 비롯 소비자 불만이 많은 제품, 구매자에게 공지하지 않은 배송 지연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고의성이 명백한 업체의 경우 즉각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석을 앞두고 주문 폭주로 남

“전남 랜선 여행으로 힐링하세요”

도관광재단, 목포·신안 언택트 관광 콘텐츠 선봬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해 한류스타 이가은과 함께 하는 전남랜선 여행을 선보였다.

이번 랜선 여행은 관광거점도시인 목포와 최근 언택트(비대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신안의 퍼플섬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낮과 밤 모두 아름답기로 소문난 목포의 낮에는 목포 9미(味) 중 하나인 우럭간국과 꽃게무침을 맛보고 한류 드라마 ‘호텔 델루나’ 촬영지인 목포근대역사관, 영화 ‘1987’ 촬영지인 시화마을을 방

문했다.

목포의 밤에는 한국관광공사 선정 야간관광지 100선에 이름을 올린 목포 해상케이블카를 타고 유달산, 고하도의 그림 같은 풍경과 목포대교의 화려한 야경을 소개했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국내 최장길이(3.23km)와 최고 높이(155m)로 유명하다.

신안 편에서는 천사대교 개통으로 차로 방문할 수 있는 반월·박지도를 소개했다. 이곳은 언택트(비대면), 힐링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더욱 주목받기 시작한 섬으로 퍼플섬이라 불린다.

마을 해상보행교인 퍼플대교를 건너면 마을의 지붕부터 거리까지 온통 보라색으로 뒤덮인 퍼플섬을 만날 수 있으며 마을 어귀에는 계절마다 보라색꽃이 피어 인생사진을 찍기에도 충분한 곳이다.

전남관광재단 관계자는 “전남 랜선 여행으로 일상의 지친 마음을 잠시나마 위안받길 바란다”며 “랜선 여행을 보고 전남을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 안전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가은 전남 랜선 여행기’는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대만어 등 5개 국어로 제작됐으며 영상은 배우 이가은과 전남관광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만날 수 있다.

/김재정기자

광주도시공사 김영창 경영이사·배운식 사업이사 취임

광주도시공사는 23일 13층 대회의실에서 김영창 경영이사와 배운식 사업이사의 취임식을 가졌다. <사진>

김 신임 이사는 이날 취임식에서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내부 임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면서 “상생과 소통으로 새롭게 출발하자”고 임직원들을 독려했다.

배 이사는 “도시재생사업과 주택복지 분야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자”며 의지를 다졌다.

김 이사는 목포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언론대학원(신문 석사)을 졸업했으며 전남종합민원실장, 전남개발공사 경영·관광본부장, 코리아호텔리 오퍼레이션 대표이사로 재직할 바 있다.



배 이사는 해남 출신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건축및도시설계 석사)을 졸업했으며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과장, 푸른도시사업소장, 건축주택과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임명직인 김영록 비상임감사도 광주시장에게 임용장을 받고 도시공사 이사회 일원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상임이사의 임기는 23일부터 3년간이다.

/김종민기자

코로나19로 지친 시·도민들과 함께하는

가을밤 거리두고, 건강걷기

2020. 9. 25.(금) 오후 18시~19시 30분 상무시민공원 둘레길

광주매일신문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가족 간 화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건강걷기를 개최합니다. 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밤에 열리는 '가을밤 거리두고, 건강걷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 할 수 있으며, 가족과 단체·동호회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마스크와 손제정제 등을 갖추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진행되는 건강걷기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과 휴식을 가질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집결장소

참가비

참가문의

상무시민공원 주차장

무료

광주매일신문 062) 650-2074

거리

두기

주최

주관

광주광역시육상경기연맹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

후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체육회

조선대학교

동신대학교

조선대학교병원

롯데쇼핑(주)

한국수력원자력

고려대학교

동강대학교

전남대학교병원

고흥군

CMYK